

『宋名臣言行錄』의 編纂과 後世 流傳*

李 瑾 明**

1. 머리말
2. 著述의 經過와 版本
3. 體制와 수록내용
4. 『宋名臣言行錄』을 둘러싼 논란
5. 맺음말

主題語 : 宋名臣言行錄, 八朝名臣言行錄, 朱熹, 李幼武, 李衡

1. 머리말

『宋名臣言行錄』(前集·後集·續集·別集·外集)은 송대 정치가와 學人들의 행적 및 발언을 輯錄한 책이다. 宋代라는 시대는 사회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중요한 전기를 이루는 시대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두 이래 이른바 ‘唐宋變革期’라는 개념이 출현하여 그것이 중국사 인식의 주요 지표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은 그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송대에 발생한 사상적 전변 가운데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程朱學의 출현과 발달인 바, 『송명신언행록』은 바로 그 程朱學의 집대성자인 朱熹의 명성과 결부되어 이후 중국을 위시한 동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외대 사학과 부교수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송대 사회경제사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음

아시아 사회에 폭넓게 유포되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남송초 주희가 처음 이 책을 편찬할 때는 북송시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적의 명칭도 『五朝名臣言行錄』과 『三朝名臣言行錄』이라 붙여졌다. 그 후 남송 말기 주희의 外孫인 李幼武란 인물이 남송 시대 인물들의 언행록을 네 개의 서적으로 저술하고, 그것이 다시 주희의 저술과 合本되어 현재와 같이 『송명신언행록』이라 명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희 및 李幼武의 저술만 해도 적어도 50여년 이상 간격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들 양인의 저술이 합본되어 단일의 서적과 같은 외양을 취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 成書의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송명신언행록』이란 서적의 출현 과정에는 남송시대 문화사 및 사상사가 여러 형태로 그 영향을 드리우게 된다.

남송말 주희와 이유무의 저작이 합본되어 출간된 이래 『송명신언행록』이라 하면 대부분 이를 지칭하였으나, 주희의 원래 저작 또한 그 合本書와 병행하여 후대로 전해졌다. 특히 清末 四部叢刊本으로 원래의 저작인 『五朝名臣言行錄』과 『三朝名臣言行錄』이 출판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合本の 『송명신언행록』과 주희의 원래 저작이 함께 통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本稿는 『송명신언행록』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解題를 시도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 저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著作되고 그것이 두 판본으로 어떻게 정착되어 갔으며, 두 판본 사이의 차이는 어떠한가 하는 점을 살피고, 이어 그 체제와 구성에 대해 검토해볼 예정이다. 특히 통상적으로는 주희의 원래 저작이 合本書에 비해 우수한 판본이라 평가되고 있으나, 合本書의 출현과 정착과정을 돌아보며 合本書 또한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 立論하고자 한다. 그 연후에 『송명신언행록』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전근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논란을 점검하면서 이를 통해 본서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자 한다.

2. 著述의 經過와 版本

오늘날 통상 『宋名臣言行錄』이라 일컬어지는 서적은 처음부터 하나의 저작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고, 朱熹와 李幼武 두 사람의 저술 여섯 개를 후대에 하나로 合本한 것이다. 주희와 이유무는 공히 남송 시대의 인물로서 남송초 주희가 먼저 북송시대 名臣들의 언행을 輯錄하여 『五朝名臣言行錄』(10권)과 『三朝名臣言行錄』(14권)¹⁾으로 간행하고, 그 뒤 이와는 별도로 주희의 外孫인 李幼武가 理宗年刊(1225~1264)의 어느 시점에 『皇朝名臣言行續錄』(8권)·『四朝名臣言行錄』(上下 각 13권),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17권)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저작들이 남송말부터 『송명신언행록』(75권)이란 단일의 책으로 合本되며 주희의 저술이 前集과 後集, 그리고 李幼武의 저술이 각각 續集·別集·外集이라 명명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주희가 『五朝名臣言行錄』과 『三朝名臣言行錄』(합하여 『八朝名臣言行錄』)을 저술한 것은 그의 나이 43세 되던 해인 孝宗 乾道 8년(1172)의 일이다. 이 무렵 그는 실로 왕성한 저작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 해만 하더라도 『八朝名臣言行錄』을 편찬하기 이전 『資治通鑑綱目』(59권)과 『論孟精義』(34권)를 저술하였고, 이후에는 『西銘解義』(1권)를 저술하고 있다. 이듬해인 乾道 9년(1173)에는 이어 『中庸集解』(2권)·『程氏外書』(12권)·『太極圖說解』(1권)·『通書解』(2권)·『伊洛淵源錄』(16권)을 편찬하였고, 다시 그 한 해 뒤인 淳熙 元年(1174)에는 『古今家祭禮』(20권)를 편찬하고 있다. 이후에도 50세가 되는 淳熙 6년(1179)까지 『近思錄』(14권)·『論語集註』(10권)·『論語或問』(20권)·『孟子集

1) 이 두 저작을 일괄하여 『八朝名臣言行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명칭은 『朱熹集』 권 75의 「八朝名臣言行錄序」란 문장에서도 드러나듯 이미 朱熹 當世부터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註』(7권)·『孟子或問』(14권)·『周易本義』(12권)·『詩集傳』(8권) 등 무려 9종의 서적을 펴냈다.²⁾ 주희의 저술활동은 만년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지속되지만 이 시기야말로 그의 일생 가운데 저술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八朝名臣言行錄』을 위시하여 『資治通鑑綱目』·『伊洛淵源錄』 등 역사서의 성격 을 지닌 저술들은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남송초라는 시점은 宋代를 통해서도 역사학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 았던 시기의 하나였다. 북송의 멸망과 宋室의 南渡라는 분위기 아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진행되었을뿐더러, 북송 중엽 이래 지속 된 黨爭으로 말미암아 實錄이나 國史의 改修 등 官修國史가 수차 굴절 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汪藻의 『靖康要錄』이라 든가 李燾의 『續資治通鑑長編』, 徐夢莘의 『三朝北盟會編』, 王稱의 『東 都史略』, 李心傳의 『建炎以來繫年要錄』 등 송대 사학을 대표하는 저 작이 속속 출간되었던 것이 그러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희의 『 八朝名臣言行錄』 또한 상당 부분 이러한 修史 풍조의 영향 아래 저술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³⁾

실제로 주희는 당시인으로부터, ‘오늘날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두고 볼 때 朱熹와 葉適만한 인물이 없다’⁴⁾ 고 칭해질 정도였다. 이른바 ‘綱 目體’라는 새로운 역사 서술의 형식을 창도한 『資治通鑑綱目』이라든 가, ‘名臣言行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시초를 이루는 『八朝名臣言行 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었다는 평가

2) 朱熹의 著述 編年에 관해서는 王懋竑, 『朱熹年譜』(北京, 中華書局 點校本, 1998), 「附錄 3」을 참조.

3) 葉建華, 「朱熹<宋八朝名臣言行錄>初探」(『史學月刊』1988-6), p.23 및 李偉國, 「朱熹<名臣言行錄>八百年歷史公案」(『學術月刊』2002-12), p.90 등을 참조.

4) 陳傅良, 『止齋集』(四庫全書本) 권 27, 「辭免實錄院同修撰第二狀」, p.9의 앞. 以 臣所見 當今良史之才 莫如朱熹葉適.

를 받고 있는 『伊洛淵源錄』 등의 저작은 그러한 역사가로서의 주희의 면모를 躍如히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官修國史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주희의 歷史眼을 잘 보여준다. 주희는 남송 초반 당시 官修國史의 왜곡 상황에 대해 강렬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저 史書는 모두 부실하여 민감한 곳에 이르면 감히 기록하려 들지 않는다’⁵⁾ 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주희에 의하면 이러한 책임 회피 내지 直筆의 외면 풍조는, 哲宗 紹聖 元年(1094) 章惇과 蔡卞이 중심이 되어 『神宗實錄』 찬수의 핵심인물이었던 范祖禹와 黃庭堅 등에 대해 처벌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례를 보고 후대의 사관들은 처벌이 두려워 단지 주어진 자료에만 의거할 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⁶⁾ 그는 資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검토야말로 史家 본연의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희는 『八朝名臣言行錄』을 저술하며 다음과 같은 「自叙」를 붙이고 있다.

내 近代의 文集 및 記事의 서적들을 읽건대, 거기에 실려 있는 宋朝 名臣들의 言行은 세상의 教化에 큰 보탬이 되도다. 하지만 그것들이 散漫한 데다가 정리되지 않아 그 始終과 안팎의 모습 전체를 살필 수 없고, 그래서 허황하고 기괴한 이야기에 경도되는 예가 많다. 내 항상 이러한 정황을 근심스러워 하다가, 이에 그 大要를 가려 취하여 이 서적을 묶어냄으로써 記覽에 편하게 하

5) 『朱子語類』 권 128, 「本朝 2」 「法制」(上海古籍出版社 및 安徽教育出版社 刊行, 『朱子全書』 제18책, 2002), p.4011. 大抵史皆不實 緊切處不敢上史 亦不關報

6) 위의 글, pp.4011 · 4012. 朱熹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今之修史者只是依本子寫 不敢增減一字. 蓋自紹聖初 章惇爲相 蔡卞修國史 將欲以史事中傷諸公. 前史官范純夫黃魯直已去職 各令於開封府界內居住 就近報國史院 取會文字. 諸所不樂者 逐一條問黃范 又須疏其所以然 至無可問 方令去. 後來史官因此懲創 故不敢有所增損也”라고 말하고 있다. 『宋名臣言行錄』에도 紹聖 元年(1094) 당시 章惇과 蔡卞이 『神宗實錄』을 重修하며 黃庭堅과 范祖禹 등에 대해 힐난했던 지간의 사정을 採錄하고 있다.(『續集』 권 1, 「黃庭堅」의 第6條目)

노라.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書籍이 不備하여 빠진 부분이 적지 않으니, 후일 더 얻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계속 고쳐가야 할 것이다.⁷⁾

이를 통해 주희는 『八朝名臣言行錄』 편찬의 의도와 저술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名臣言行錄』이란 세상의 敎化를 목적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文集을 위시한 기존 서적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名臣의 발언과 행적을 輯錄하였다는 것이다. 名臣들의 言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敎化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희 자신이 밝히고 있는 저술의 취지였다. 또 이 「自叙」에서는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정작업을 계속할 것임도 피력하고 있다. 주희 자신이 밝히고 있는 이러한 저술의 취지와 저술 방침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名臣言行錄』의 평가와 관련되어 후일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란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孝宗 乾道 8년(1172) 『八朝名臣言行錄』이 간행된 이래 주희의 명성과 더불어 이 책이 각처로 유포되면서 그 版本 또한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그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理宗 寶祐 6년(1258) 李居安이란 인물⁸⁾은,

- 7) 『八朝名臣言行錄』 「自叙」(『朱子全書』 第12冊), p.8. 予讀近代文集及記事之書 觀其所載國朝名臣言之迹 多有補於世教者. 然以其散出而無統也 既莫究其始終表裏之全 而又汨於虛浮怪誕之說 予常病之. 於是掇取其要 聚爲此錄 以便記覽. 尙恨書籍不備 多所有闕 嗣有所得 當續書之.
- 8) 臺灣 학자 鄭騫은 「朱熹八朝名臣言行錄의 原本與刪節本」(國立編譯館 主編, 『宋史研究集』 4, 臺北, 國立編譯館, 1969)에서 李居安과 太平老圃 李衡이 동일인물이었을 것이라 立論한 바 있다(pp.1·2). 이에 대해 裴汝誠과 顧宏義는 「兩種版本, 不可偏廢-鄭騫先生《朱熹〈八朝名臣言行錄〉의 原本與刪節本》讀後感」(『邁入21世紀的朱子學』, 紀念朱熹誕辰870周年逝世800周年論文集,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에서 이러한 추론에는 전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pp.313·314). 하지만 裴汝誠과 顧宏義의 반론은, 鄭騫이 『詩經』 「陳風」에 의거하여 李居安과 李衡이 동일인물이라 추론했던 사실을 비판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필자는 本稿를 준비하며 제반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欽定天

宋朝 名臣들의 言行을 史籍에 수록할 때에는 모름지기 상세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始初의 正本은 상세하기는 하나 統紀가 산만하다. (반면) 近世의 纂要本들 또한 剪截을 행하였으니 앞뒤가 뒤섞여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은 四部叢刊本이 간행되기 이전까지 통행되던 合本書의 序文으로 실려 있는 것이다. 李居安은 당시 朱熹의 原本과 이를 剪截한 纂要本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송말 주희의 저작은 여러 형태로 剪截되었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판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중 李居安이 선택한 판본은 그 序文의 뒤에 기록되어 있듯이 太平老圃 李衡이란 인물에 의해 校正된 것이었다. 李衡의 校正本에 대해 그는, “적절한 訂正을 통해 분명한 체계를 이루어 내었고 동시에 번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간단하지도 않다”¹⁰⁾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太平老圃 李衡의 校正本은 이후 주희의 原本을 대체하며 通用의 판본으로서 자리잡기에 이른다. 이처럼 李衡의 校正本이 通用本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李幼武이다.¹¹⁾ 李幼武

蘇琳瑯書目』 권 5에서, “李居安 江西志載爲廬陵人 登寶慶二年丙戌進士. 其校正之李衡 宋史載爲江都人 字彥平 登進士第. 由吳江主簿 歷官秘閣修撰致仕 定居崑山.”(『元版史部』 『宋名臣言行錄』, p.53의 앞·뒤)이라며 양인의 개략적인 행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李居安과 李衡은 裴汝誠·顧宏義이 추론했던 바와 같이 결코 동일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9) 『宋名臣言行錄』의 「序」(臺北, 文海出版社 影印本, 1967), p.9. 本朝名臣一言一行 史筆所錄 法當詳瞻. 然始初之正本固詳瞻矣 而統紀之漫漶 近世之纂要雖剪截矣 而顛末之參差.

10) 위와 같음. 點勘訂正 有宗有元 不繁不簡.

11) 李幼武의 李衡 校正本 간행,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저작을 합쳐하였던 己간의 사정에 대해 趙崇進(石+全)은 理宗 景定 2년(1261) 『宋名臣言行錄』 『續集』(『皇朝名臣言行續錄』)의 序文을 撰하며, “李士英 頃以宗人太平老圃所校八朝名臣言行錄鈔梓 大爲學者便矣. 今又於中興四朝諸名臣 蒐閱行事 集爲全編筆成 示余一覽”이라 적고 있다. 士英은 李幼武의 字이다.

는 李衡의 一族으로서 그의 校正本을 간행하여 學人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희의 『八朝名臣言行錄』이 북송시대의 名臣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남송시대의 인물을 선별하여 별도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그것이 바로 『皇朝名臣言行續錄』(8권)·『四朝名臣言行錄』(上下 각 13권),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17권)이었다. 그리고 李衡의 校正本에다가 자신의 저작 세 편을 덧붙여 합본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행해진 것이 理宗年間の 일이었다. 四部叢刊本으로 주희의 原本(『五朝名臣言行錄』과 『三朝名臣言行錄』)이 재출간되기 전 지배적인 판본으로 통용¹²⁾되던 이른바 五集合刻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간행되었던 것이다. 청대 四庫全書에 수록되었던 판본도 주희의 原本이 아닌 五集合刻本이었다. 이러한 通用本의 前集과 後集에는 ‘晦庵先生 朱熹 纂集 太平老圃 李衡 校正’이란 著者 및 編者의 이름이 붙여지고, 또 續集 및 別集·外集에는 ‘後學 李幼武 纂集’이란 著者명이 붙여졌다.

그렇다면 李衡의 校正本은 朱熹의 原本을 어떻게 변형시킨 것이었을까? 李衡의 校正本이란, 前記한 바 있는 通用의 五集合刻本 序文에서 李居安이 말하고 있듯 剪截의 纂要本 가운데 하나였고, 따라서 기

12) 남송말 李幼武에 의해 五集合刻本이 출간된 이래 四部叢刊本이 간행되기 전까지 朱熹의 原本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동안 學人들이 閱覽한 것도 거의 대부분 五集合刻本이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四部叢刊初編書錄提要』에서는 “是朱子單行之本 宋季已罕傳矣”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筆者의 검색에 의하면 남송말 이후 朱熹의 原本이 거명되거나 혹은 그것을 讀書하였던 것으로 기록되는 사례는, ① 『宋史』 권 203, 「藝文 2」 「史類」(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p.5123); ② 黃震, 『黃氏日抄』 권 50, 「讀史」 「名臣言行錄」(四庫全書本); ③ 馬端臨, 『文獻通考』 권 199, 「經籍考 26」 「八朝名臣言行錄」(四庫全書本, p.16의 앞); ④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권 7, 「傳記類」 「八朝名臣言行錄」(四庫全書本, p.32의 앞); ⑤ 王世貞, 『弇州四部考』 권 130, 「宋先司諫公告身眞蹟」(四庫全書本, p.13의 뒤); ⑥ 『皇清文頌』 권 21, 「書朱子五朝名臣言行錄後」(果毅親王 允禮 著, 四庫全書本, pp.1의 앞·2의 앞) 등에 불과하다.

본적으로 주희의 原本을 刪節한 것이었다. 주희의 原本(『八朝名臣言行錄』)은 每名臣마다 서두에 小傳을 달았으며, 이어 주요 言行의 事跡을 列記하였다. 또 言行의 사적에 따라서는 注文을 附記하며 본문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한다거나 혹은 사료 검토,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 등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李衡의 校正本에서는 小傳을 裁減하여 字와 出身 등만을 남기고 거의 삭제하다시피 하였으며, 일부 注文을 本文으로 돌리는 대신 注文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臺灣 학자인 鄭騫의 분석¹³⁾에 의하면 小傳의 경우 약 85%, 事跡 부분의 경우 條目數로 따져 36% 정도를 삭제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李衡은 刪去하지 않은 나머지 條目에 대해서도 상당한 裁減을 단행하고 있으므로, 鄭騫은 전체 분량을 헤아린다면 그 刪去量이 6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刪去 내지 裁減의 기준은 대체로 名臣의 언행록이란 書名에 걸맞게, 名臣에게 긍정적인 측면만을 남기고 부정적인 記述을 삭제하는 방향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現存의 두 版本(朱熹의 原本, 李衡의 校正本)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주희의 原本 쪽이 훨씬 우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李衡의 校正本은 대폭적인 刪去로 말미암아 사료적인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刪去의 안목 자체도 매우 조잡하다는 것이다. 刪去로 인해 분량이 대폭 축소된 李衡의 校正本이 사료적 가치란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주희가 『八朝名臣言行錄』을 저술할 당시 이용하였던 일차자료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闕失되어버린 상황¹⁴⁾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李衡의 校正本에서 행한 刪去 가운데 명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한 것은

13) 앞서 든, 「朱熹八朝名臣言行錄의 原本與刪節本」, pp.3~5.

14) 이에 대해서는, 李偉國, 「八朝名臣言行錄 點校說明」(『朱子全書』 『八朝名臣言行錄』, p.3을 참조.

논외로 한다면, 그 刪去가 일방적으로 매도될만치 무의미한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校正本에서의 산거로 말미암아 사실관계를 뒤바뀌어 버린 오류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것이다.

(開府)公이 (司馬)溫公과 同年契를 맺었던 연고로 마침내 溫公을 좇아 공부하게 되었다.(「後集」 권 12, 「劉安世」, 괄호 속은 李衡의 校正本에서 刪去된 부분)¹⁵⁾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¹⁶⁾에서도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李衡의 校正本에서는 서두의 ‘開府’라는 글자를 刪去함으로써 문맥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開府公은 劉安世의 부친인 劉航인 바, 劉航이 司馬光과 同年契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연고로 劉安世가 사마광에게 수학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李衡의 校正本에서는 ‘開府’라는 두 글자를 산거함으로써, 劉安世가 司馬光과 同年이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年契의 일원인 司馬光에게 수학한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李衡 校正本에서의 刪去가 납득할만한 기준에서 행해진 사례 또한 적지 아니하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예를 두 개만 들면 아래와 같다.

① 眞宗 大中祥符(1008~1016) 년간의 말엽, 王曾이 知制誥로 있으며 조정내에서 그 聲望이 날로 무거워져 갈 때의 일이다. 어느 날 中書에 이르러 王曾을 뵈자,

15) (開府)公與(司馬)溫公爲同年契 因遂從學於溫公.

16) 鄭騫, 앞서 든, 「朱熹八朝名臣言行錄의 原本與刪節本」, pp.11·12 및 裴汝誠·顧宏義, 앞서 든, 「兩種版本, 不可偏廢-鄭騫先生《朱熹<八朝名臣言行錄>의 原本與刪節本》讀後感」, pp.322·323.

“그대는 여이간이란 인물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왕증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증은 몰리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당시 여이간은 太常博士로서 濱州의 通判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대부분 그 재능을 칭찬해 마지 않았다.

그 뒤 왕증이 다시 왕단을 뵈고 다시 이전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왕증은,

“공께서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셨기에 몰리나 탐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들은 대로 대답하였다.)

이에 왕단이 말했다.

“훗날 이 인물은 그대와 더불어 재상직을 담당하게 될 것이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나 역시 그를 모르오. 다만 그의 奏請을 읽은 바 있을 뿐이오.”

왕증이 다시 물었다.

“어떤 일을 奏請했습니까?”

“농기구에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몇 가지 일이었소.”

(당시 왕증은 자신감이 넘쳐 있을 때라서 왕단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짐짓,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였다.

얼마 후 여이간은 濱州通判職을 마치고 양절로의 提點刑獄으로 승진하였고, 또 얼마 되지 않아 侍從이 되었다. 그리고 丁謂가 좌천되자 왕증에 의해 執政으로 발탁되었으며,

그 뒤 마침내 왕증과 더불어 재상이 되었다.

(그 후 어느 날 왕증은 여이간에게 조용히 왕단의 말을 전하였다. 두 사람은 그의 선견지명에 대해 凡人이 미치지 못할 바라고 탄복해 마지 않았다.

후일 張方平이 이 일을 여이간으로부터 전해 듣고 神道碑에 대략적인 내용을 적었다.)¹⁷⁾ 「前集」 권 6, 「呂夷簡」, 팔호 속은 李衡의 校正本에서 刪去된 부분¹⁷⁾

17) 祥符末 王沂公知制誥 朝望日重. 一日 至中書 見王文正公 問 君識一呂夷簡否? 沂公曰 不識也. (退而訪諸人 許公時爲太常博士 通判濱州 人多稱其才者. 它日復見文正 復問如初 沂公曰 公前問及此人 退而訪之 具所聞以告.) 文正曰 此人異日與舍人對秉鈞軸. 沂公曰 公何以知之? 曰 吾亦不識 但以其奏請得之. 沂公

② 李元昊가 반란을 일으키자 陝西의 四路에 군대를 배치하고 夏竦을 總帥로 삼았다. 그런데 夏竦은 長安에 머물며 戰場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精兵과 勇壯들을 모두 휘하에 거느렸으며 邊境의 四路에서 전투를 위해 이동할 때에도 모두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戰場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일일이 통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四路 군대의 패전에 대해 직접 總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에 (知制誥) 장방평은 諫官이 되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自古로 元帥로서 직접 적에 맞서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齊桓公이나 晉文公과 같은 이는 비록 霸主였으나 친히 군대를 이끌고 戰場에 임했습니다. 또 휘하의 장수들이 패전하게 되면 元帥는 모름지기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諸葛亮이 大將軍이었을 때 馬謖이 패전하자 右將軍으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이는 古今의 通義입니다. 현재 하(송)은 長安에 느긋이 머물며 적과 맞서려 하지 않으며, 諸路의 패전 또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總帥의 이름만 있을 뿐 總帥로서의 內實은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四路의 패전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가하고 總帥職에서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연후에 四路의 帥臣들로 하여금 스스로 방어의 계책을 세우게 하고, (다른 路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여 적절히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는 편이 事勢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朝廷은) 이 말에 따라 (하송을 知別州로 강등시켰다. 四路가 각각 방어에 임하였던 것도 모두 이러한 장방평의 上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後集」 권 3, 「張方平」, 팔호 속은 李衡의 校正本에서 刪去된 부분)¹⁸⁾

曰 奏請何事? 曰 如不稅農器等數事. (時沂公自待以不淺 聞文正之言 不信也. 姑應之曰 諾. 既而許公自濱罷 擢提點兩浙刑獄 未幾 爲侍從. 及丁晉公敗 沂公引爲執政) 卒與沂公竝相. (沂公從容道文正語 二公皆嗟嘆 以爲非所及. 其後張公安道得其事於許公 故於許公神道碑略叙一二.)

18) 元昊(既)叛 陝西四路置帥 夏(英公)竦爲總帥 居長安 不臨邊 (精兵勇將得留寘廳下 四路戰守出入皆取決焉. 既遠不及事 而四路負敗 罰終不及總帥. 知制誥張公(安道)爲諫官 言. (自古元帥無不身自對敵 雖齊桓晉文霸主 亦親履行陣. 至於將佐有敗 元帥必任其責. 諸葛亮爲大將軍 馬謖之敗 降右將軍. 此古今通義也. 今

이 가운데 ①은 일부의 研究¹⁹⁾에서 李衡 校正本에서의 刪去가 부실하고 粗惡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刪去로 인해 너무 간략해졌고 또 문장의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刪節이야말로 李衡 校正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刪去를 통해 간략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만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朱熹의 原本은 전체적으로 王昶의 先見之明을 전하는 듯한 내용임에 반하여, 李衡은 刪去를 통해 微官時節부터 呂夷簡에게 특출한 재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條目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 條目이 呂夷簡의 事跡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李衡의 산거는 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말미에 등장하는 張方平과 관련한 내용은 蛇足에 불과한 부분이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刪去되어 무방하다 할 것이다. ②는 李衡의 校正本이 條目 자체는 취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어떻게 刪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李衡은 刪節을 통해 전체의 취지는 누락없이 전달하면서도 분량을 4할 이하로 裁減하고 있다. 이러한 裁減 과정에서 생략된 것은 부연 설명 및 諸葛亮 등에 관한 故事 등에 불과하다. 여기서 드러나듯 李衡은 刪去를 통해 가능한 한 名臣의 言行을 簡要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宋名臣言行錄』이 著述되는 과정과 兩種 版本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그 판본들의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주희의 『八朝名臣言行錄』이 남송초 史學 중시의 풍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또 李幼武가 남송시대 名臣들의 言行을 輯錄하여 『續集』과 『別集』, 『外集』을 撰述하고 여기에 李衡이 朱熹의 所著를 再編한 이른바 ‘校正本’을 合刻하면서 이 五集合刻本이 通用本으로서의

夏)竦端坐長安未嘗臨敵 諸路失律 一皆不問 有總帥之名 而無總帥之實. 乞據四路敗事 加以責罰 而罷總帥 使四路帥臣 自任戰守之計 (有事干它路者 遞相關報 隨宜救應 於事爲便 朝廷從之. (英公降知別州 而四路各任其事 蓋始於此).

19) 鄭騫, 앞서 든, 「朱熹八朝名臣言行錄의 原本與刪節本」, pp.8·9.

지위를 점유하기에 이른다는 사실을 논급하였다. 또한 兩種의 판본 가운데 통상적으로는 주희의 原本이 단연 우수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李衡에 의해 校正된 판본 또한 상당히 양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다음 章에서는 『송명신언행록』의 體制와 그 수록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體制와 수록내용

前記하였듯 通用本 『宋名臣言行錄』의 다섯 부분, 즉 前集·後集·續集·別集·外集의 원래 명칭은 『五朝名臣言行錄』·『三朝名臣言行錄』·『皇朝名臣言行續錄』·『四朝名臣言行錄』,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이다. 이 가운데 前集과 後集은 남송초 朱熹에 의해 저술되고 나머지 續集·別集·外集은 남송말 朱熹의 外孫인 李幼武가 朱熹의 所著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저술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前集과 後集, 그리고 續集·別集·外集의 체제와 구성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名臣들의 간략한 小傳을 기록한 다음 그들이 남긴 言行의 자취들을 기존의 서적에서 採錄하여 나열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세밀히 고찰할 경우 朱熹와 李幼武가 저술한 부분은 자못 상이한 면모를 보이며, 그 편찬의 안목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드러난다.

우선 각부분의 권수와 수록 인물의 숫자를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주희의 저술부분(前集과 後集)은 합계 24권, 수록인물 102명임에 반하여 李幼武의 저술부분(續集·別集·外集)은 합계 51권에 수록인물은 138명에 달한다. 李幼武의 저술부분이 주희의 저술부분에 비하여 권수로는 약 2배, 수록인물의 숫자로는 1.3배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내용의 분량을 헤아리면 李幼武의 저술은 주희의 그것에 비

해 약 2배에 이른다.²⁰⁾ 通行本에서 채택하고 있는 李衡의 校正本이 주희의 原本을 약 6할 정도 刪去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초 주희가 저술한 분량은 李幼武의 저술량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또 前集과 後集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기는 대략 북송의 165년(太祖~徽宗)이고, 續集·別集·外集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기는 대략 남송의 100년(高宗~寧宗)이다. 그런데 각각 名臣 102명과 138명을 立傳하고 있다. 다만 李幼武의 저술부분 가운데 續集에는 북송말 이래 남송초에 걸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고 外集에는 북송시대와 남송시대 인물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결국 李幼武가 주희의 『五朝名臣言行錄』 및 『三朝名臣言行錄』에 대비하여 남송시대의 名臣으로 선정한 인물들은 別集(『四朝名臣言行錄』)의 65인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주희는 165년 동안 102명(매 10년에 6.2명), 李幼武는 100년 동안 65인(매 10년에 6.5명)을 名臣으로 선정한 것이 된다. 다른 조건들을 捨象하고 期間에 대비한 名臣의 선정 비율만을 헤아린다면 주희와 李幼武가 거의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술하듯 양인 사이 명신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혹은 명신 행적의 제시 등에 있어서는 판이한 편차를 보인다.

<표 1> 『宋名臣言行錄』의 수록인물 통계

書名	撰者	권수	수록인물 숫자
『五朝名臣言行錄』(前集)	朱熹	10	58(附傳 3人)
『三朝名臣言行錄』(後集)	朱熹	14	44(附傳 2人)
『皇朝名臣言行續錄』(續集)	李幼武	8	29
『四朝名臣言行錄』(別集)	李幼武	26	65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外)	李幼武	17	44(附傳 6人)
총계		75	240

20) 이러한 추계는 臺北의 文海出版社에서 影印出刊한 『宋名臣言行錄五集』의 쪽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文海出版社 影印本은 전체 2242쪽인데 그 중 前集과 後集 부분이 790쪽이고, 續集·別集·外集 부분이 1452쪽에 달한다.

앞서 수차 언급했듯이 주희의 저술부분(前集과 後集)은 북송시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원래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前集(『五朝名臣言行錄』)은 북송시대 다섯 황제(太祖·太宗·眞宗·仁宗·英宗) 시기의 名臣, 後集(『三朝名臣言行錄』)은 북송시대 후반기 세 황제(神宗·哲宗·徽宗) 시기의 名臣들을 수록하고 있다. 對金 전쟁이 긴박히 전개되던 마지막 황제 欽宗의 治世 1년여를 제외하고 북송시대 전시기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英宗의 治世가 嘉祐 8년(1063) 4월부터 治平 4년 正月(1067)까지 채 4년이 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五朝’와 ‘三朝’라는 지칭은 편의상의 용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²¹⁾ 실제로 前集과 後集에 立傳된 名臣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前集에 실린 인물로서 神宗 시대까지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며, 또 반대로 韓琦나 富弼·歐陽修·文彥博·吳奎·張方平·胡宿·蔡襄·王素·唐介·趙抃 등 後集에 立傳된 인물들 가운데 仁宗時期부터의 行蹟이 登載되어 있는 사례도 허다하다. 前集과 後集을 통해 주희는 사실상 북송시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자 했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前集과 後集이 이처럼 북송시대 名臣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음에 반하여 李幼武의 저술부분(續集·別集·外集)은 조금 복잡한 편차를 보인다. 우선 續集(『皇朝名臣言行續錄』)에는 대략 북송 말부터 남송초에 걸쳐 활동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黃庭堅이나 錢卽처럼 朱熹 所撰의 前集·後集에 등장하는 명신과 유사한 성격의 인물도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 대부분은 對金 전쟁의 과정

21) 英宗의 治世가 이렇게 단기간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日人學者 梅原郁이 朱熹의 저술 가운데 前集(『五朝名臣言行錄』)도 太祖·太宗·眞宗·仁宗까지의 四朝, 後集(『三朝名臣言行錄』) 역시 英宗·新種·哲宗·徽宗의 四朝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를 ‘四朝名臣言行錄’이라 命名할 경우 구분이 되지 않아 편의상 ‘五朝’와 ‘三朝’라 지칭했을 것이라는 설명(梅原郁 編譯, 『宋名臣言行錄』, 東京, 講談社, 1986의 「解説」, p.15)도 설득력이 박약하다 아니할 수 없다.

에서 功을 세우거나 혹은 節義를 지켜 殉死하는 존재들이다.

다음으로 別集(『四朝名臣言行錄』)은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 남송의 네 황제, 즉 高宗·孝宗·光宗·寧宗 시기 名臣들의 言行을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록 인물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高宗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孝宗 이후 시기까지 활동하는 인물은 전체 65명 가운데 張浚·張燾·李顯忠·胡銓·汪澈·張闡·辛次膺·周葵·王庭珪·向子忞·趙密·魏勝 등 십여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光宗과 寧宗 시기에 걸쳐 활동하는 인물은 전연 등재되고 있지 않다. 李幼武는 理宗 시기 『四朝名臣言行錄』을 편찬하며, 書名上으로만 이전까지의 남송 네 황제 시기를 포괄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남송초 고종시대의 인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別集(『四朝名臣言行錄』)을 上·下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모호하기 그지 없다. 上冊과 下冊이 각각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성격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上冊 역시 對金 전쟁과정에서 功을 세우는 武將을 중심으로 하여 문인관료가 간간히 섞여 있으며, 下冊도 마찬가지로 대금전쟁 과정에서 수훈을 세우는 武將과 文臣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다만 굳이 차이를 추출하자면, 上冊에는 李綱이나 呂頤浩·張浚·趙鼎·韓世忠·岳飛·劉光世·張俊 등 비교적 지명도가 높고 비중이 큰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下冊에는 上冊에 등재된 인물들에 비교하자면 그 비중이 작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이다.²²⁾

22)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別集(『四朝名臣言行錄』)에 수록된 인물 17명은 모두 『宋史』 列傳에 立傳되어 있으며, 下에 수록된 인물은 48명 가운데 6명(권 3의 周麟之·권 5의 陳戩·권 6의 王縉·권 10의 王庭珪와 翁蒙之·권 11의 向子忞)이나 『宋史』 列傳에 누락되어 있다. 이밖에 『宋名臣言行錄』에 登載된 名臣 가운데 『宋史』 列傳에 立傳되지 않은 인물로는 續集에 1명(권 2의 許份), 外集에 7명(권 8의 劉安節, 권 9의 孟厚·侯仲良·周行己·王蘋·李郁, 권 14의 魏挺之)이 있다. 朱熹 所撰의 前集과 後集에 수록된 名臣은 모두 『宋史』 列傳에 立傳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外集(『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은 송대 주요 道學者들을 수록하고 있다. 다른 네 부분(前集·後集·續集·別集)과는 달리 ‘道學’이라는 단일의 기준을 가지고 인물을 선별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수록 범위도 ‘五朝’나 ‘三朝’ 혹은 ‘四朝’ 등과 같이 송대의 일부 시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북송과 남송 전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道學의 名臣들을 外集으로 일괄하기 위해, 朱熹 所撰의 後集에 수록되어 있던 邵雍을 이곳으로 옮기고 있는 것도 주목을 끈다. 邵雍篇의 경우 朱熹의 原本(『三朝名臣言行錄』 권 14之1)이 24개 條目(正文 20, 注文 4)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해, 李幼武 所撰의 外集(권 5)은 그 3배 이상인 80개 條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그 인물 수록의 下限은 대략 朱熹가 활동한 孝宗 무렵까지이며, 전체 수록 인원 44명 가운데 그 작고 시점이 光宗의 治世 이후였던 인물은 朱熹를 포함하여 5명(朱熹·陸九淵·陳亮·蔡元定·蔡沈)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유무가 명신 언행록을 편찬하며 특별히 外集의 道學名臣傳을 설정하였던 것은, 후일 『宋史』를 편찬할 때 「道學傳」을 설치하는 先河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³⁾

『송명신언행록』에 수록된 인물들 가운데 다수는 재상이나 執政 등 고관을 지낸 존재이다. 이는 ‘명신’의 언행을 輯錄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하겠다. 이를테면 日人 학자 梅原郁의 집계²⁴⁾에 의하면, 朱熹가 편찬한 전집과 후집에는, 수록된 인물 총 102명 가운데 재상과 執政을 역임한 인물이 61명이며 그 나머지도 三司使나 翰林學士·御史臺官·諫官 등의 고위 관직 경력자가 태반을 점유한다. 관직을 거치지 않은 在野의 학자나 문인은 대략 10여인에 불

23) 裴汝誠·顧宏義, 앞서 든, 「兩種版本, 不可偏廢-鄭騫先生《朱熹〈八朝名臣言行錄〉의 原本與刪節本》讀後感」, p.322.

24) 梅原郁 編譯, 『宋名臣言行錄』 「解說」, pp.15~17.

과하다. 이러한 면모는 이유무가 撰述한 속집·별집·외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對金 전쟁 과정에서 활약한 忠臣들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는 續集이나, 송대 주요 사상가의 행적 및 사상을 輯錄한 外集을 일단 차치하면, 別集(『四朝名臣言行錄』)에 수록된 인물들은, 宰相과 執政, 그리고 宣撫使·武將등 高宗의 治世 정치를 주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송명신언행록』에는 북송과 남송을 통해 주요 정치적 현안에 참여한 인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송명신언행록』은 名臣이라는 중요인물을 중심으로 엮은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술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다가 續集에 수록된 대금 전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臣僚들의 행태라든가, 혹은 外集에 수록된 송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의 행적과 사상까지를 감안하면, 『송명신언행록』이 지닌 역사기록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제고된다 할 것이다. 남송시대의 黃震이, “『春秋』는 編年 형식으로 서술하였고 司馬遷과 班固 이후에는 紀傳體가 大勢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名臣言行錄』은 朱文公이 우리 宋朝의 역사를 은근히 담아낸 새로운 기록이다.”²⁵⁾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看取한 발언이라 하겠다.

이처럼 『송명신언행록』이 기본적으로 역사서이므로 그 속에 편찬자인 朱熹와 李幼武의 역사인식 내지 인물평가가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仁宗의 治世 후반기 慶曆新政이라 일컬어졌던 范仲淹 중심의 개혁과, 神宗年間의 王安石 신법이라 할 수 있다. 慶曆의 新政에 대해서는 당시 대립의 양측 가운데, 주희는 거의 范仲淹·歐陽修·韓琦 등에 左袒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 반대쪽의 呂夷簡에 대해서는 그에게 한 편을 할애하고 있기는 하나

25) 黃震, 『黃氏日抄』 권 50, 「讀史」 「名臣言行錄」, p.42의 뒤. 春秋紀年以書 班馬以來分紀傳 而此錄亦朱文公陰寓本朝之史.

대체로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이러한 편파적인 자세는 王安石 新法 시기에 이르면 더욱 심화된다. 북송시대 160여년을 통해 재상을 역임한 인물은, 欽宗 治世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60여명이다. 이 가운데 주희는 대략 절반 정도의 인물을 『八朝名臣言行錄』(전집과 후집)에 수록하고 있음에 반해, 新法 계열의 재상으로는 王安石만이 예외일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名臣 대열에 산입시키지 않는다. 심지어 王安石에 대해서조차 주희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李幼武의 역사인식은 외조부였던 주희의 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무 저술부분이 주로 남송초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그 내용은 남송의 對金 전쟁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對金關係에 관한 이유무의 입장은 매우 강경한 주전론이다. 우선 採錄의 내용부터 對金 주전론을 전개했던 武將들 및 宰相들의 언행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秦檜 주도로 체결되는 紹興和議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하다 할 정도로 외면한다. 이후 이유무가 재차 名臣의 행적으로 채록하기 시작하는 시기도 대금 전쟁이 다시 전개되는 고종 말년과 효종초의 시기이다. 名臣으로서의 立傳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금 강경론을 전개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위상의 고하를 불문하고 立傳하는 반면 진회일파의 주화론자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前述했듯 그는 『宋史』의 列傳에조차 立傳되지 않은 인물 수인을 名臣의 반열에 올리고 있다. 심지어 金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식을 포지한 인물에 대해서는 애써 긍정 일변도의 행적만을 채록하고 있기도 하다.²⁶⁾

26) 『別集 上』 권 11, 「李顯忠」에서 采石磯 전투 당시 李顯忠의 활약상을 전하고 있는 부분(第8條目)이라든가, 혹은 『別集 下』 권 9 「吳玠」에서 吳玠의 作故와 관련하여 그의 청렴함과 士卒에 대한 애정을 輯錄하는 부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高宗 紹興 31년(1161) 11월 전개된 采石磯의 전투는 거의 전적으

『송명신언행록』은 朱熹가 『八朝名臣言行錄』의 「自敍」에서, “大要를 가려 취하여 묶어낸다”고 밝히고 있듯, 기존 서적들 가운데 명신의 嘉言懿行과 관련한 條目들을 輯錄한 서적이다. 주희나 그의 저술을 계승하여 속집·별집·외집을 찬술했던 이유무가 직접 記述한 것이 아니다. 남송 당시의 허다한 서적들, 즉 官私撰의 史書라든가 文集·筆記 史料·墓誌銘·行狀·家傳 등에서 名臣의 언행을 보여주는 일화와 記事를 대략 시간 순서로 재배열한 것이다. 다만 주희는 전집과 후집을 편찬하며 그 근거자료를 明記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유무는 극히 일부 條目에서만 出典을 기록할 뿐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주희가 전집과 후집을 찬술하며 이용했던 자료는 官私의 저작 약 100여종 및 이밖에 碑銘과 墓地銘·行狀 등이 100여종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필기자료인 司馬光의 『涑水記聞』과 邵伯溫의 『邵氏聞見錄』으로부터 採錄한 부분이 전체의 약 10% 정도이며 行狀이나 墓誌銘 등에서 인용한 것이 약 63%에 달한다고 한다.²⁷⁾ 그런데 주희가 전집과 후집을 撰述하며 이용했던 자료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失傳된 상태이며 그밖의 자료들도 현재까지 전해지며 일부 闕失되어 있다고 한다.²⁸⁾ 남송 당시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완성한 『송명신언행록』의 전집과 후집은 오늘날 사료적인 가치란 면에서도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로 虞允文의 지휘 아래 전개되었으며 李顯忠은 戰場에의 도착도 뒤늦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采石磯 전투의 상황에 대해서는 『宋史』 권 367, 「李顯忠傳」 및 권 142 「虞允文傳」을 참조). 하지만 李幼武는 마치 李顯忠이 采石磯 전투의 주도자였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虞允文 휘하의 時俊 등도 마치 李顯忠의 副將이었던 것으로 적고 있다. 또 吳玠의 作故와 관련하여 『宋史』 권 366, 「吳玠傳」에서는, “晚節頗多嗜欲 使人漁色於成都 喜餌丹石 故得咯血疾以死”(p.11414)라고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유무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극히 美化하고 있는 것이다.

27) 梅原郁 編譯, 『宋名臣言行錄』 「解說」, pp.15~17.

28) 이에 대해서는 李偉國, 「八朝名臣言行錄 點校說明」(『朱子全書』 『八朝名臣言行錄』, p.3을 참조.

<표 2> 『宋名臣言行錄』續集·別集·外集 各條目的 四庫全書內 잔존여부 一覽

	조목수	잔존 조목	일부 잔존 조목	현재 闕失 조목
續集 (皇朝名臣言行錄續錄)	227	190	20 (江公望 1, 許份 1·3·3, 种師道 1·4·5, 劉韜 7, 李若水 5, 歐陽珣 1, 宇文許中 2, 楊邦乂 2·12, 呂祉 9·12·13·14·17·18·21)	17 (江公望 1, 吳敏 1·2·3, 劉韜 18, 歐陽珣 2·3·5, 洪皓 16, 楊邦乂 9·10·11, 呂祉 6·10·15·16·20)
別集 上 (四朝名臣言行錄)	537	520	14 (李綱 32·50, 呂頤浩 30, 張浚 84, 趙鼎 35, 楊沂中 1·7, 張九成 1, 晏敦復 7·8·10, 劉錡 9, 李顯忠 1, 胡銓 20)	3 (晏敦復 1·3·4)
別集 下 (四朝名臣言行錄)	475	396	44 (陳康伯 1·2·14·15·16, 王庶 1·4·5, 周麟之 1·2, 葉夢得 4, 程瑀 2, 王大寶 5·9, 陳公輔 2·3·10, 黃龜年 3, 辛次膺 6·9·11·12·15·16·17·18·20, 呂本中 1·7, 吳玠 11·12, 向子恣 3, 趙密 1, 王德 1·2·4, 張子蓋 3·4·5·6, 魏勝 3·4·5·6)	35 (陳康伯 7·18, 王庶 2, 葉夢得 5, 王大寶 1·6·8·10, 陳公輔 4·5·6·7·8·9·12·13, 黃龜年 4·5·6, 辛次膺 1·2·3·4·5·8·10·13·14, 呂本中 6·8·9, 向子恣 9, 趙密 2·4·5)
外集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1,058	1,020	22 (周敦頤 40·57, 程顥 18·24, 程頤 7·9·25·57·59, 謝良佐 13, 朱熹 2·4·18·21·31, 張栻 3·8, 劉清之 4, 陳亮 1·18·20, 蔡元定 13)	16 (謝良佐 17·25, 楊時 17, 胡安國 27·32, 胡宏 18, 呂祖謙 24·26, 張栻 15, 劉清之 6·10·11·16, 陸九淵 11, 陳亮 21·22)
총계	2,297 (100%)	2,126 (92.6%)	100 (4.3%)	71 (3.1%)

* 인명 뒤의 숫자는 條目的 순서를 가리킨다. 즉 李綱 32·50은 李綱編의 32번째 條目과 50번째 條目を 표시함.

** 『宋名臣言行錄』의 版本은 宋史資料萃編本(臺北, 文海出版社)을 이용했음.

그렇다면 남송말의 시기 이유무가 찬술한 부분, 즉 속집·별집·외집의 사료적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아쉽게도 이유무는 인용한 서적을 明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書籍名을 통해 이용자료의 失傳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유무 所撰 부분의 條目들을 일일이 四庫全書內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現存여부를 전면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집계한 결과가 < 표 2 >이다. 이유무가 저술한 부분 가운데 전체 條目の 3.1%는 四庫全書內에서 전연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그 4.3%는 유사한 내용이 존재하되 『송명신언행록』의 기록이 더 상세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전체 가운데 7.4%에 상당하는 條目들은 현재 『송명신언행록』에 수록된 내용이 유일하거나 혹은 일차적인 사료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주희는 역사가로서도 상당한 안목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까닭에 주희가 저술한 『八朝名臣言行錄』은 正文외에 적지 않은 注文을 부가하며 이를 통해 正文의 事跡을 비판하거나 혹은 부가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²⁹⁾ 특히 민감한 事案일 경우 注文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한다. 주희의 이러한 비교적 엄정한 편찬과 대비할 때, 이유무가 찬술한 부분(속집·별집·외집)은 어떠한 면모를 보이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清代 四庫全書를 찬한 館臣들은, ‘言行 事跡의 채취에 輕重이 없을 정도로 졸렬하며 다만 朱熹의 原本에 附驥하여 읽힐 뿐이다’³⁰⁾ 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유무의 저술 부분을 정독하면 이러한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 할 정도로 그 저술의 粗惡함이 산견된다. 우선 事跡들 간에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예³¹⁾가 허다하고, 기본적인 사실의 착오를 범하는 사례³²⁾도 빈출한다.

29) 朱熹의 注文 사용에 대해서는 葉建華, 앞서 든, 『朱熹<宋八朝名臣言行錄>初探』, pp.25·26 참조.

30) 『宋名臣言行錄』의 「提要」. 其所去取 不足以爲輕重 以原本附驥而行.

31) 『別集 上』 권 12, 「劉子羽」의 第2條目(紹興 3년 4월)과 第3條目(建炎 4년 9월)

또 採錄의 과정에서 刪節을 잘못하여 本義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³³⁾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수록하는 경우³⁴⁾

; 『別集 上』 권 13, 「胡銓」의 第6條目 및 第7條目(高宗年間の 事跡이 전후 孝宗 연간의 事跡 사이에 위치); 『別集 下』 권 4, 「葉夢得」의 第6·7·8條目(南渡 以後)과 第9條目(方臘의 亂 관련 事跡); 『別集 下』 권 12, 「陳規」의 第2條目(建炎 4년 6월)과 第3條目(建炎 2년 正月) 등. 심지어 『別集 下』 권 11, 「向子忞」에서는 第1條目(孝宗 隆興 元年 5월)과 第2條目(高宗 建炎 3년), 第4條目(유년시절), 第5條目(建炎 2년), 第6條目(紹興 10년), 第7條目(紹興 5년) 등 거의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 32) 『別集 下』 권 5, 「廖剛」의 小傳에서 그의 沒年이 高宗 紹興 13년(1143)인데 이를 紹興 3년(1133)이라 하는 것이라든가, 『別集 下』 권 6, 「杜莘老」의 第1條目은 高宗 紹興 26년(1156)에 있었던 일(『宋史』 권 28, 「高宗紀 8」, 紹興 26년 6월 조 및 『建炎以來繫年要錄』 권 173, 紹興 26년 6월 丁未 등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紹興 25년(1165)이라 적고 있는 것, 『別集 下』 권 9, 「吳璘」의 第1條目에서 階州와 成州를 階城이라 誤記(『宋史』 권 366, 「吳玠傳」, p.11410 및 『三朝北盟會編』 권 186, 四庫全書本, p.4의 앞 참조)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 33)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別集 上』 권 3, 「張浚」의 第81條目에서 符離之師의 실패 직전에 관한 정황으로 朱熹가 지은 張浚의 行狀 『朱熹集』 권 95 下, 「少師保信軍節度使魏國公致仕贈太保張公行狀 下」에서 節錄하며, “公自往臨之. 軍事利鈍難必(恐或小跌 傷上有爲之心) 乞上以諸葛亮出師表置之左右”란 대목에서 관호 속을 刪去하고 採錄하고 있다. 이로써 혹시 敗戰하더라도 孝宗으로 하여금 有爲之心을 잃지 않도록 자극하였다는 本義가, 마치 張浚 자신 패전후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사전조치를 해두었다는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다. ② 『別集 下』 권 11, 「陳規」의 第1條目에서는, “公知安陸 祝進攻德安 守臣李公濟遁 父老請公攝府事. 公辟進士安陸 韓之美及寓居十餘人爲屬官 見射士張立率民兵禦進 却之 人心稍固. 是日 王在遣人持檄諭公開門”이라 載錄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는 한 마치 祝進이 물러가던 날 바로 뒤이어 王在가 사람을 보내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날(是日)’은 아마도 이 항목의 原出處였던 것으로 보이는 『建炎以來繫年要錄』을 그대로 節錄하며 改變시킴 없이 부주의하게 그냥 놔둔 것이다. 『建炎以來繫年要錄』에서 말하는 是日이란 당연히 매 항목의 虛頭에 제시된 날짜를 가리킨다. 실제로 『建炎以來繫年要錄』에서는 祝進의 격퇴에 대해 ‘앞서(先是)’란 말을 써서 王在 집단의 도래와는 다른 시기의 일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建炎以來繫年要錄』 권 1, 建炎元年 正月 壬寅, 第1冊, p.28). ③ 『別集 下』 권 11, 「陳規」의 第4條目에서는, “公奏本鎮屯營田畫一事件. 自中原失守 諸重鎮多失 惟公與群盜屢戰 自楊進之徒 皆不能犯 由是德安獨存. 牢城卒方壽等嘗謀亂

도 있다. 다음 章에서 서술하듯 『송명신언행록』의 출현 이후 시간이 흐르며 그와 관련한 논의가 적지 않게 행해지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전집과 후집에 관해서만 언급되고 이유무 所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두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희와 이유무라는 撰者의 輕重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상의 심대한 편차 또한 상당한 작용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公方會食 有告變者 公捕而詰之 問從謀者幾 壽曰 一城之軍 公之左右皆是 今夕舉事矣 公命誅壽 餘不問 府皆復之”란 내용을 싣고 있다. 이 가운데 허두의 “公奏本鎮屯營田畫一事件”란 내용은 나머지 부분과 전연 상관이 없는 내용이며 오히려 다음 條目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역시 『建炎以來繫年要錄』을 節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建炎以來繫年要錄』에서는 본래 본 항목과 다 항목이 동일한 날자에 함께 記述되어 있다. 맨 먼저 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후에 해당 날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전체 내용의 두 부분으로 잘라 각각 독립 항목으로 배열하였던 관계로 이러한 부조화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建炎以來繫年要錄』 권 49, 高宗 紹興 元年 11월 丁未, 第2冊, p.875 참조). ④ 『外集』 권 1, 「周敦頤」의 第35條目에는, “潘清逸誌先生之墓 敘所著書 特以作太極圖爲稱首. 然則此圖當爲先生書首不疑也. 然先生既手以授二程 本因附書後 傳者見其如此 遂悟以圖爲書之卒章 不復釐正 使先生立象盡意之微持暗而不明 而驟讀通書者 亦復不知有所摠攝. 此則諸本之失也.”란 대목이 나온다. 도중에 갑자기 版本의 善惡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本書의 編者 李幼武의 부주의에서 기인한다. 본디 이 항목의 原典이라 할 수 있는 朱熹의 「周子太極通書後序」에서는 그 序頭에서, “右周子之書一編 今春陵零陵九江皆有本 而互有同異. 長沙本最後出 乃熹所編定 視他本最詳密矣”(『朱熹集』 권 75, 第7冊, p.3942)라고 말하며 『通書』 諸版本과 비교하여 朱熹 자신이 編定한 長沙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李幼武는 본 항목을 節錄하며 이 부분은 생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시 등장하는 版本의 장단점에 대한 朱熹의 평가는 미처 刪截하지 않아, 전후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34) 예컨대 『別集 上』 권 11, 「李顯忠」의 第8條目에서는 金 海陵王의 僞詔에 대해 宋軍의 지휘자는 王權이 아닌 李顯忠이라고 答信을 보내는 내용이 重出하고 있고, 『別集 下』 권 9, 「吳玠」의 第7條目과 『別集 下』 권 9, 「吳玠」의 第1條目は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마찬가지로 『別集 下』 권 9, 「吳玠」의 第8條目과 『別集 下』 권 9, 「吳玠」의 第2條目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宋名臣言行錄』을 둘러싼 논란

앞서 I장과 II장을 통해서는 『송명신언행록』이 成書되는 과정과 두 판본의 형성, 그리고 그 체제와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유무의 所撰 부분(속집·별집·외집)은 주희의 『八朝名臣言行錄』(전집과 후집)을 계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兩人의 저술이 습刻되기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 편찬 내용은 주희의 저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못 粗惡한 수준임을 고찰하였다. 이제 本章에서는 『송명신언행록』의 간행 이후 이를 둘러싼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송명신언행록』은 발간 이후 주희의 명성을 배경으로 폭넓게 유포되어 갔으며,³⁵⁾ 이와 더불어 그에 대한 毀譽의 논란도 다양히 제기되었다. 그 최초의 문제제기는 주희가 『八朝名臣言行錄』을 펴낸 직후 발생하였다. 바로 그와 평생에 걸쳐 지우관계를 맺었으며 함께 『近思錄』을 편찬하기도 했던 呂祖謙에 의해서였다. 呂祖謙은 주희에게 서신을 보내,

근래 麻沙에서 간행한 『五朝名臣言行錄』이란 이름의 서적을 하나 보았는데 형식이 『論孟精義』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귀하가 編定한 것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 말이 맞는지요. 그 내용 중에는 수정과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만일 귀하가 펴냈다면 제게 그와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펴낸 것이라면 오늘날 실로 여러 잡다한 책들이 어지럽게 나돌아 다니고 있으니 더 논의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³⁶⁾

35) 이러한 정황에 대해 朱熹 자신, “言行錄流布甚廣”(『朱熹集』「別集」 권3, 「林擇之」)이라 말하고 있다.

36) 『東萊集』(四庫全書本), 「別集」 권 8, 「尺牘 2」 「與朱侍講元晦」, p.42의 앞·뒤. 이 인용문 가운데 『論孟精義』란 孝宗 乾道 8년(1172) 주희가 『八朝名臣言行錄』을 편찬하기 직전 저술한 서적이다. 近麻沙印一書 曰五朝名臣言行錄 板樣頗

라고 말하고 있다. 정중하기는 하지만 『五朝名臣言行錄』을 出處도 불분명하게 나도는 雜書와 비견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呂祖謙은 이러한 서신을 보낸 후 다시 汪應辰이란 인물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주희가 편찬한 『五朝名臣言行錄』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주희에게 편지를 통해 물어보았지만 答信이 아직 없다. 편찬 과정에서 근거한 기록 가운데는 오류도 많아 자료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³⁷⁾ 주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후 答信을 보내, ‘『名臣言行錄』은 당시 조급히 서두르다보니 착오가 많았다.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주면 고맙겠다.’고 답하고 있다.³⁸⁾ 그러자 여조겸은 재차 汪應辰에게 서신을 보내, ‘朱熹로부터 추후 수정의 약속을 받았다. 나 역시 시간을 내어 오류를 정정해 보려한다’고 적고 있다.³⁹⁾ 이러한 呂祖謙과 주희 사이의 서신 왕래를 살펴보면, 일견 여조겸의 지적에 대해 주희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呂祖謙이 이처럼 『八朝名臣言行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북송 仁宗代의 재상이었던 呂夷簡의 六代孫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주희는 『五朝名

與精義相似。或傳五丈所編定 果否? 蓋期間頗多合考訂商量處。若信然 則續次往求教。或出于他人 則雜錄行世者固多 有所不暇辨也。

37) 『東萊集』, 『別集』 권 7, 「尺牘 1」 「與汪端明聖錫」, p.4의 앞. 여기서 呂祖謙은, “近建寧刊一書 明五朝名臣言行錄 云是朱晦庵所編 其間當考訂處頗多. 近亦往問元晦 未報. 不知嘗過目否? 前輩言論 風旨日遠 記錄雜說 後出者往往失真 此恐亦不得不爲之整頓也.”라 말한다.

38) 『朱熹集』 권 33, 「答呂伯恭」, 第3冊, p.1423. 言行二書 亦當時草草爲之 其間自知尙多誤謬 編次亦無法 初不成文字. 因看得爲訂正示及爲幸. 王懋竑의 『朱熹年譜』에 의하면, 이 答信은 『八朝名臣言行錄』의 편찬 이듬해인 高宗 乾道 9년(1173)에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권 1, p.61).

39) 『東萊集』, 『別集』 권 7, 「尺牘 1」 「與汪端明聖錫」, p.4의 뒤. 言行錄或因翻閱遇有訂正處 口授侍傍者抄出 似不爲煩 而于後學甚有益. 某少暇亦當試据所聞見考求 續當請教. 近亦因書嘗語元晦 得報亦甚欲得討論也.

『臣言行錄』에 呂夷簡을 立傳하고 있지만, 그 편찬과정에서 呂夷簡에게 불리한 기술도 적지 않게 採錄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권 9 之5, 『孔道輔』의 第2條目에 실려 있는 郭后의 廢位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 條目은 司馬光의 『涑水記聞』에서 採錄하였던 것으로, 거기에는 呂夷簡의 郭后 廢位 책동 및 그가 諫官들의 諫言을 가로막았던 일, 그리고 폐위후 郭后를 謀殺한 사실 등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여이간의 후손들은 『속수기문』이 사마광 자신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여조겸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 또한 『속수기문』의 인용,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여이간의 극히 부정적인 측면을 아무 가감 없이 채록하였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여조겸의 공박에 대해 주희는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前述한 대로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涑水記聞』이 사마광의 친필 저작임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그가 훗날,

『涑水記聞』에 대해 呂氏家門의 자제들은 사마광의 저작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한다.⁴⁰⁾ 하지만 나는 일찍이 范祖禹의 자손을 통해 그가 사마광이 적은 『속수기문』의 친필 원고를 직접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어찌 사마광의 저작이 아닐 수 있겠는가! 내가 편찬한 『八朝言行錄』을 두고 呂祖謙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자손된 자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나,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자기들 주장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안될 말이다.⁴¹⁾

라고 술회하고 있다. 주희는 『八朝名臣言行錄』을 편찬하며 나름대로 엄밀한 자료비판을 행한 상태였다. 위 인용문에서는 말하듯 『속수

40) 原著에는 이 부분에 “蓋其中有記呂文靖公數事 如殺郭后等”이란 原注가 붙여져 있다.

41) 『朱子語類』 권 130. 涑水記聞 呂家子弟力辨以爲非溫公書. 某嘗見范太史之孫某 說親收得溫公手寫稿本. 安得非溫公書. 某編八朝言行錄 呂伯恭兄弟亦來辨. 爲子孫者只得分雪 然必欲天下之人從己 則不能也.

기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다.⁴²⁾ 따라서 여조겸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주희는 자신의 저술 및 인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여조겸에게 답신을 보낼 때 그의 비판을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던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짐짓 그러했음에 불과했던 것이다.

『송명신언행록』을 둘러싼 논란은 이후 시간이 흐르며 더욱 다기롭게 전개되어 간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후대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던 것 두 가지, 즉 明代 楊愼의 비판과 清代 四庫全書에서 드러난 입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宋代 이후 明初에 이르기까지도 『송명신언행록』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였다.⁴³⁾ 하지만 楊愼의 비판은 이전까지 일찍이 없을 정도로 극렬한 어조를 띤다.

朱晦庵이 지은 『宋名臣言行錄』에서는 王安石을 名臣으로 삼아 司馬光과 병렬시켰다. 무릇 사마광과 왕안석이 다투었던 것은 신법 때문이었다. 신법이 옳다면 신법을 저지하였던 것이 잘못이다. 따라서 安石이 명신이라면 사마광은 명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다.……朱子의 저술은 天下 後世에 비록 어린 아이와 병졸 따위라도 그 누구 한 사람 동조할 수 없을 것이다.⁴⁴⁾

여기서 보는 楊愼의 비판은 呂祖謙이 제기한 문제점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조겸의 문제제기는 『속수기문』이라는 자료의 이용 방식에 관

42) 『朱熹集』 권 81, 「書張氏所刻潛虛圖後」에는 高宗 紹興 19년(1149), 范祖禹의 자손으로서 司馬光의 후손을 妻로 맞이한 인물 范炳文을 만나 『涑水記聞』이 司馬光의 친필 저작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43) 이에 대해서는 李偉國, 앞서 든, 「朱熹<名臣言行錄>八百年歷史公案」, pp.93-94를 참조.

44) 楊愼, 『升庵集』(四庫全書本) 권 49, 「黨籍碑」, p.14의 뒤. 朱晦庵作宋名臣言行錄以王安石爲名臣 與司馬光並列. 夫司馬光與安石所爭者 新法也 新法之行是 則諫沮新法者非. 安石爲名臣 則司馬光不得爲名臣矣. …… 公之特筆 而天下後世雖兒童走卒 未有一人之見同焉者也.

한 것이었다. 양신은 주희의 편찬태도, 즉 王安石을 名臣으로 채택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희의 찬술이 ‘어린 아이와 병졸’ 따위의 식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양신의 극렬한 비판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주희가 왕안석을 명신으로 선정한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胡應麟 등과 같은 인물은, ‘朱熹의 名臣 선정 기준은 매우 관대하여 다만 한 시대 聲望이 높고 事跡이 중대한 인물일 따름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⁴⁵⁾ 清代 果毅親王 允禮란 인물 역시 胡應麟과 비슷한 견지에서, ‘권선징악을 위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인물도 실었다’고 말하고 있다.⁴⁶⁾

한편 清代的 魏源은 楊慎의 논의 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양신의 『송명신언행록』 비난이 기본적으로 주희에 대한 극단적 반감에 근거한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魏源에 의하면 『송명신언행록』의 왕안석 관련 기술은 기본적으로 元祐 구법당 인사들의 비판적 논설을 다수 採錄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송명신언행록』에서 왕안석과 사마광에 대해 옳고그름을 뒤바꿔 놓았다고까지 말하는 양신의 공박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⁴⁷⁾

45) 胡應麟, 『丹鉛新錄』 권 6. 蓋盡一代聲譽烜赫事迹關涉者 備錄于中. 其間碌碌甚重 如王介甫者 詎得而遺之哉.

46) 『皇清文頌』(四庫全書本) 권 21, 果毅親王 允禮, 『書朱子五朝名臣言行錄後』, p.1의 앞. 朱子所編五朝名臣言行錄 其事與辭皆取之竝世人所撰次 泛覽之若無以異人. 及究其所以勸懲之義 然後知非有道有德者莫能裁也.

47) 魏源, 『古微堂文集』(上海, 國學扶輪社, 1909, 木版本), 「外集」 권 3, 「再書宋名臣言行錄後」, pp.15의 뒤·16의 앞. 여기서 魏源은, “(楊慎)至謂朱子列安石名臣言行錄 經素易位 則尤不可辨. 朱子跋兩陳諫議 罪狀安石 纒纒三四千言 不啻九鼎鑄魑魅. 而茲錄安石十餘事 則皆心若公孫宏學若商君愎若陽處父怙子若石季龍. 皆取元祐諸君子攻安石語……夫同一言行錄也 臨川人則曰誣謗安石 蜀人則曰左袒安石 果仁者見仁 智者見智耶.”라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蔡上

淸 중기 乾隆年間에 간행된 四庫全書에서는 『송명신언행록』에 대해 명대의 楊愼 못지 아니한 비판적 자세를 보인다. 四庫의 館臣들은 우선 『송명신언행록』의 「提要」에서 나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가운데는 趙普와 같이 陰險한 사람, 王安石과 같이 乖僻스러운 사람, 또 呂惠卿 같은 간사한 사람도 韓琦나 范仲淹 같은 인물과 함께 名臣으로 병렬시키고 있으니 그 의도를 알 수 없다.……(한편) 劉安世는 氣節이 凜然하여 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툰 정도이다. 그의 저서인 『盡言集』이나 『元城語錄』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으니 당시는 당연히 참고가 가능했을 것이나 그로부터는 단 한 글자도 採錄하지 않았다. 이러한 처사는 후세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이다.⁴⁸⁾

이러한 견해는 당시 侍讀學士로서 사고전서의 總纂을 맡았던 紀昀에 의해 記述된 것이었다. 그는 도저히 명신이 될 수 없는 趙普·王安石·呂惠卿 같은 인물들을 立傳하고 있는 것과, 劉安世의 저서들을 전연 인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후 다수의 논객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紀昀의 비판은 그 자체 커다란 오류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呂惠卿은 立傳되지도 않았을뿐더러 劉安世의 저작 또한 적지 않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魏源과 같은 사람은, ‘紀昀이 보았던 판본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뿐만 아니라 四庫의 館臣들은 여타 서적의 提要에서도 기회 있을

翔과 같은 인물은, “(王安石)得謗于天下後世 固結而不可解者 尤莫甚于言行錄”(『王荊公年譜考略』, 「雜錄」 권 2)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48) 編中所錄 如趙普之陰險 王安石之堅僻 呂惠卿之姦詐 與韓范諸人並列 莫詳其旨. ……然劉安世氣節凜然 爭光日月 盡言集元城語錄今日尙傳 當日不容不見 乃不登一字 則終非後人所能喻.

49) 魏源, 『古微堂文集』, 「外集」 권 3, 「書宋名臣言行錄後」, p.14의 앞.

때마다 『송명신언행록』을 공박한다. 이를테면 『名臣碑傳琬琰之集』의 「提要」에서는, ‘비단 『名臣碑傳琬琰之集』에 그치지 않고 『송명신언행록』이나 『名臣奏議』 등에서도 奸臣인 丁謂나 王安石·呂惠卿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當世에 아직 恩怨이 남아 있어 공정함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⁵⁰⁾ 또 『盡言集』의 「提要」에서는, ‘『송명신언행록』에서는 王安石·여혜경의 기록까지 이용하면서 유안세에 대해서는 그가 程子를 비난한 적이 있다 하여 그의 저작에서는 한 글자도 採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⁵¹⁾

이상과 같은 紀昀을 위시한 四庫 館臣들의 『송명신언행록』 비판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로 魏源도 反論을 제기한 바 있거니와, 특히 近人 余嘉錫은 광범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⁵²⁾ 그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四庫의 館臣, 특히 紀昀의 所論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반론의 요체는 역시 趙普와 王安石 등이 立傳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설명, 그리고 劉安世의 저작들이 採錄된 정황에 대한 설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四庫 館臣들은 『송명신언행록』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그것에 의거하여 고증을 행하기도 한다. 특히 宋人들의 행적이란든가 어떠한 사안의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四庫 館臣들은 『송명신언행록』에 의존하여 裁斷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穆修의 『穆參軍集』 「提要」에서 『송명신언행록』에 의거하여 尹洙가 穆修로부터 古文을 배웠던 사실을 논증하는

50) 中如丁謂王欽若呂惠卿章惇曾布之類 皆當時所謂奸邪 而竝得預于名臣 其去取殊爲未當. 然朱子名臣言行錄趙汝愚名臣奏議 亦濫及于丁謂王安石呂惠卿諸人. 蓋時代既近 恩怨猶存 其所甄別 自不及後世之工 此亦事理之恒 賢者有所不免

51) 至朱子作名臣言行錄 于王安石呂惠卿 皆有所採錄 獨以安世嘗劾程子之故 遂不載其一字.

52) 余嘉錫, 『四庫提要辨證』(中華書局香港分局, 1974) 권 6, 「史部 4」 「名臣言行錄前集十卷後集十四卷」, pp.323~332.

것이라든가, 혹은 韓琦의 『安陽集』 「提要」에서 司馬光이 樞密副使를 사임할 당시 韓琦가 文彥博에게 서신을 보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龍川文集』의 「提要」에서 陳亮이 孝宗代 여섯 차례 상주문을 올려 시국관을 피력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紀昀을 위시한 四庫 館臣들은 『송명신언행록』과 주희에 대해 분명한 반감을 노정하면서도 그 문헌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송명신언행록』은 그 발간 직후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 呂祖謙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이용 자료의 성격을 둘러싼 것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저술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혹은 名臣立傳의 타당성 여부 등 본질적 문제로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그러한 다각적 논란은 그 자체 『송명신언행록』의 사회적 유포 및 지식인 사회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5. 맺음 말

주희가 『八朝名臣言行錄』을 편찬했던 것은 남송초 史學 著作의 흥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는 북송의 멸망과 宋室의 南渡로 말미암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있었다. 북송 중엽이래 지속된 당쟁과 그로 말미암은 官修國史의 굴절도 私撰 역사 서술을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주희는 그 자신 역사학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실제로 역사학적 안목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孝宗 乾道 8년(1182) 그가 편찬한 『八朝名臣言行錄』을 살펴보면, 그 저술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했고 또 얼마나 신중하게 편찬에 임했는가 하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주희가 저술한 『八朝名臣言行錄』은 북송시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후 이 저작이 각처로 유포되며 다양한 판본이 형성되었는데 그 중 점차 李衡의 校正本이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기에 이른다. 이형의 교정본이 通用本으로 자리잡는 데는 李幼武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주희의 外孫이기도 했던 이유무는 남송 말기, 주희 저작의 속편을 저술하는 형식으로 『皇朝名臣言行續錄』과 『四朝名臣言行錄』·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을 편찬하고, 이를 주희가 지은 『八朝名臣言行錄』과 합체하여 『송명신언행록』이란 서명을 붙였다. 이 五集合刻本에서는 주희의 저술을 전집과 후집이라 명명하고, 자신의 저술을 각각 속집·별집·외집이라 불렀다. 이형의 교정본은 주희의 저술을 대폭 축약한 것이었다. 특히 주희는 이른바 ‘명신’들의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採錄하였지만 이형은 가능한 한 嘉言懿行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고 있다. 이러한 두 판본, 즉 주희의 元本과 이형의 校正本 가운데 통상적으로는 주희의 원본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축약으로 인해 이형의 교정본이 사료적 가치란 면에서 미흡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형의 교정본은 원문을 다소간 축약함으로써 사건 전개를 명확히 한다는 특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원문의 내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라든가 혹은 蛇足과 같은 부연설명이 가해지는 경우 이들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형의 刪改는 그 나름대로 분명한 원칙과 이유에 의거하여 행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이형의 교정본 또한 상당히 양호한 판본이라 생각된다.

『송명신언행록』에는 북송과 남송을 통해 주요 정치적 현안에 참여한 인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송명신언행록』은 名臣이라는 중요인물을 중심으로 엮은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술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다가 續集에 수록된 對金 전쟁과 그 과

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臣僚들의 행태라든가, 혹은 外集에 수록된 송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의 행적과 사상까지를 감안하면, 『송명신언행록』이 지닌 역사기록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제고된다. 따라서 그 편찬 과정에서 역사 사건 인식 내지 인물평가가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仁宗 연간의 慶曆新政과 신종 시대의 왕안석 신법이다. 이유무가 저술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撰者의 시각이 분명히 감지된다.

『송명신언행록』은 발간 당시부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최초의 문제제기는 주희의 友人 가운데 하나였던 呂祖謙에 의해서였다. 여조겸은 자신의 6대조인 呂夷簡과 관련한 서술의 타당성을 문제로 삼았다. 그 논란 과정을 살펴보면 주희가 편찬에 임하여 상당히 엄정한 사료비판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남송 후반기와 明代를 거치며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대되어, 撰述의 원칙 및 名臣의 평가 기준과 관련한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러한 논란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이 명대 楊慎 및 청대 四庫館臣들의 발언이다. 그들은 공히 『송명신언행록』의 名臣 立傳 태도를 공박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공박에 대해 한편으로는 『송명신언행록』의 입장을 두둔하는 논설도 제기되는 등 복잡한 토론의 양상을 보였다.

주희가 『팔조명신언행록』을 간행한 이후 그것은 사대부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어 갔다. 그러한 정황을 두고 주희 자신, ‘언행록이 심히 널리 유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한다.⁵³⁾ 또 그 편찬 방식을 원용한 이른바 言行錄體 역시 상당히 광범위하게 답습되어 이후 수많은 亞種의 저작이 간행되기도 한다.⁵⁴⁾ 黃宗羲 같은 인물은, 言行錄體

53) 『朱熹集』 「別集」 권3, 「林擇之」. 言行錄流布甚廣.

54) 葉建華의 집계에 의하면 주희 이후 言行錄을 모방한 史書는 도합 24종이나 지술된다고 한다(앞서 든, 「朱熹〈宋八朝名臣言行錄〉初探」, p.28 참조).

를 역사서술의 새로운 형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⁵⁵⁾ 주희의 명성과 함께 『송명신언행록』은 전근대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 폭넓게 유포되어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며, 本稿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송명신언행록』을 둘러싼 여러 논란 또한 그러한 유포와 영향을 보이는 또 다른 단면의 하나라 하겠다.

K C I

55) 『南雷文定』「後集」 권 1, 「明名臣言行錄序」.

《宋名臣言行錄》的編撰和后世流傳

李 瑾 明

朱熹編撰《八朝明臣言行錄》與南宋初史學著作的興盛有着非常密切的關聯。當時因為北宋的滅亡和南宋的南遷使得士大夫們對歷史的關心有所提高。北宋中葉以來持續的黨派之爭以及由此波及的官修國史亦成為刺激私修歷史著述的因素。另外，朱熹本身對歷史學的關心頗大，而且對歷史學的眼光亦達到了相當的水平。考察編撰於孝宗乾道八年(1182)的《八朝明臣言行錄》，就可以感受其編撰過程所用資料之多和編撰之慎重。

朱熹所撰《八朝明臣言行錄》是以北宋時期為對象的。此後，該著作流布各地形成了諸多版本，其中李衡的校正本逐漸占據了支配地位。李衡的校正本成為通用本，李幼武起到了決定性作用。李幼武系朱熹外孫，他以朱熹續篇的形式編撰了《皇朝名臣言行續錄》、《四朝名臣言行錄》和《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並將其同朱熹所著《八朝明臣言行錄》併合定書名為《宋名臣言行錄》。上述五本合集中，朱熹所著被命名為前集和後集，自己的著作分別稱為續集、別集和外集。李衡的校正本系朱熹著作大幅縮減而成。尤其對朱熹采錄的不少所謂“名臣”的消極一面，李衡加以全部刪除，而盡量留用了嘉言懿行部分。這兩個版本即朱熹的原本和李衡的校正本，通常對朱熹的原本評價更高。因為縮減，李衡的校正本在史料方面的不足是不言自明的，但李衡的校正本通過縮減原文，使得事件的展開脈絡更清晰的優點。諸如原文中有內容曖昧或畫蛇添足似的敷衍說明部分，李衡全部加以刪除以期精確性的事例亦不少見。李衡的刪改是根據一定的原則和理由進行的，就這一方面李衡的校正本可以說是非常不錯的版本。

《宋名臣言行錄》均衡收錄了北宋和南宋期間參與主要政治懸案的人物。從這種意義上可以說《宋名臣言行錄》是以所謂名臣的重要人物為中心編寫的新形歷史著述。另外，如果考慮續集收錄的對金戰爭過程中諸多官僚的言行態度和外集收錄的代表宋朝思想家的行迹與思想，《宋名臣言行錄》作為歷史記述所具有的价值將會進一步提高。而在編撰過程中，反映對歷史事件的認識和人物評價亦是不可避免的事情。其典型事例便是仁宗年間的慶曆新政和神宗時期的王安石變法。從李幼武的編撰部分同樣可以清楚地感受編撰者的視角。

《宋名臣言行錄》從刊行當時反映就很敏感。最早提出異議的是朱熹友人之一的呂祖謙。呂祖謙就有關自身六世祖呂夷簡敘述部分的妥當性提出了質疑。縱觀其責難過程，可以確認朱熹在編撰過程中進行了非常嚴正的史料批判。此後，責難不會停止。經歷南宋後半葉和明朝，責難進一步擴大，責難內容亦向編撰原則和名臣的評價基準等擴大。在諸如此類的責難中，最引人注目的是明代楊慎和清代四庫館臣的言論。他們共同攻駁了《宋名臣言行錄》為名臣立傳的態度。對於類似的攻駁，還出現了維護《宋名臣言行錄》立場的論調，顯示出了當時複雜的爭論局面。

朱熹刊行《八朝明臣言行錄》之後，就迅速流布于士大夫之間。對於這一情況朱熹曾說：“言行錄流布甚廣”。此後，援用其編撰方式的言行錄體亦被廣泛摹仿，且刊行了許多亞種著作。黃宗羲甚至稱言行錄體為歷史著述的新形式。《宋名臣言行錄》同朱熹的名聲一道廣泛流布于中國後封建知識分子社會，其影響甚廣。就如本文所論，圍繞《宋名臣言行錄》提出的諸多責難，亦是反映這種流布和影響的又一斷面。